

제4강 영토기계와 국가의 역사

최진석

1. 사회는 무엇을 하는가?

사회체, 혹은 사회 기계는 본질적으로 욕망을 어떤 방식으로 기계화하느냐에 달린 구성체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러한 사회체의 변이를 대략 세 가지로 나눠서 논의한다. 원시 영토 기계, 야만 전제군주 기계, 문명 자본주의 기계가 그것들이다.

각각 미개, 야만, 문명에 대응하는 이러한 사회의 역사는 기실 지금껏 역사를 분별하던 익숙한 방식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 구분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든지, 구체성을 결여한 추상적 도식이라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자. 이러한 비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역사를 연표와 이름들, 사건들의 나열과 인명의 열거 속에서 지표화하고자 한다. 몇 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무슨 사건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개입해 있고... 사람들의 호기심과 등쌀에 못견뎠는지, 『천의 고원』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 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아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다. 의미화에 저항하는 역사가 들뢰즈와 가타리가 추구하는 역사다. 여기엔 세 가지 함축이 있다. 첫째, 연대기적 서술은 역사를 더 이상 변동불가능한 박제로 대한다. 거기엔 흐름이 빠져있다. 모든 사적 기술은 연대라는 빈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끼워맞춰진다. 지나간 시간은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행하고 변형하는지, 운동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다. 아울러, 결정적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연대기의 시간은 언제나 ‘그 직전’까지다. 둘째, 사건과 이름들의 역사는 생성을 빠뜨리고 있다. 그것은 인간화된 시간이며, 비인간의 지점을 살펴보지 못한다. 미개, 야만, 문명의 세 기계로부터 자꾸만 ‘발달’이나 ‘발전’, ‘진화’의 흔적을 찾으려는 시도도 그 탓이다. 인간적 관점 너머의 시간대, 즉 비인간의 지대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찾아봐야 한다. 셋째, 생성과 비인간의 견지에서 보는 역사가 기계의 역사, 혹은 기계적 역사다. 그것은 태초의 힘(토지)을 어떻게 분절하는지, 분절하여 획정하고(영토화), 재분절하는 추력 속에 위치짓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하지만 그것은 실증적 사실을 찾아 복구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그 힘의 벡터를 타진하는 분석이란 점에서 종합을 겸한다. 지도그리기로서의 역사.

2. 욕망의 흐름, 또는 우발성의 세계사

역사의 원동력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정의나 도덕, 섭리, 혹은 이성 따위로 역사를 설명하려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니체는 여기에 일침을 놓는다. 역사? 그것은 힘(권력)에의 의지에 다름 아니라고! 들뢰즈와 가타리는 힘에 대한 의지란 결국 욕망이라고 부연한다. Achtung! 욕망은 비인칭적이다. 누구의, 무엇을 위한 욕망이란 없다. 그런 것은 허깨비다. 욕망은 오직 욕망 자체를 위해 흐른다. 이것이 욕망이 주체라는 말의 뜻이다.

전자본주의적 사회기계들은 욕망에 일정한 코드(법칙)를 부여하고 그 흐름을 통제하는 데서

성립했다. 욕망이 거침없이 흘러 새나가거나 범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체가 추구하던 목표였다. 반면 자본주의는 모든 개별적인 코드들을 뒤엎고, 욕망의 흐름 자체를 코드화한다. 탈코드화의 흐름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코드화의 본질이다. 화폐의 초코드화, 곧 공리계가 자본주의의 유일한 코드다.

문제는 자본주의는 탈코드화의 역동성을 그 사회체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작동시킬 뿐, 극한(limit)까지 밀어붙이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욕망의 흐름, 그것을 제어하고 고정시키는 형태들의 역사는 기존의 선형적이고 발전론적 역사관을 부정한다. “세계사는 우발들의 역사이지 필연의 역사가 아니며, 절단들과 극한들의 역사이지 연속성의 역사가 아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도 이렇게 설명된다. 자본주의, 그것은 화폐라는 탈코드화의 흐름과 탈영토화된 노동자들의 흐름이 만나 형성된 사회체라고. 달리 말해, 자본주의로 현행화될 수많은 국면들이 있어왔다.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는 그것이 될 기회를 우연하게도, 절묘하게도 포착한 어떤 순간 형태를 드러낸 결과다. 즉 이탈과 분리의 힘으로서 자본주의는 특정한 역사적 형태만을 가리키진 않는다. 어떤 점에서 그것은 역사의 모든 사회적 형태들에 달라붙어 있던 경향이다(Braudel).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해체, 그것이 착종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되어 있는 계기를 탈구시킬 기회란 것도 잠재적으로는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듯 세계사란 우발적이고 특이적이며 아이러니컬한 동시에 위기적인 흐름의 계열들이다.

3. 문화, 잔혹성의 체제

대지(terre/earth)는 욕망과 생산의 원시적 통일체다. 그것은 충만한 신체로서 모든 생산력들 위에 포개져 있으며 생산력을 그 안으로 흡수하는 거대한 기계다. 대지와 기계, 신체를 위계화된 지층들로 나누지 말자.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강림하는’ 존재의 서열을 그리는 것은 낡은 형이상학의 잔재다. 초월적 구도가 아니라 내재적 평면에서 대지, 기계, 신체는 섞여 있다. 문제는 작동이다. 그것들이 어떻게 혼합되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가? 그래서 어떤 표현의 형식을 얻는가?

비인간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기술기계와 달리 사회기계는 인간을 재료로 삼는다. 물론 기술기계나 사회기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어쩌면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하는 게 옳다. 하지만 문제는 작동양상, 혹은 어떤 관점에서 작동하는가에 있다. 후자는 인간에게 부여할 기억을 형성한다. 기억은 사회체에 있는 인간들을 통제하는 코드로서, 재생산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가령, 시계는 그 자체는 기술기계의 일부지만, 그러나 일상과 생산의 시간을 조절하는 법과 질서의 표상이 됨으로써 사회기계의 일부로 나타난다. 사회기계의 내적 동학은 욕망(생산)에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이 생산하는 힘을 분리해내고, 다시 그 기계의 재생산을 위해 투여하는 데 있다. “흐름들을 코드화하는 일은 사회 기계의 최고 임무이다”.

사회에 대해 광범위하게 퍼진 가설 중 하나는 사회는 교환과 평형을 이루는 무대라는 것이다. 이는 근대 사회정치론의 테제에서부터 현대 인류학적 조사연구까지 일반화된 생각이며, 교환과 평형을 잃어버리는 사회에 대한 우리의 공포심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들뢰즈·가타리는 교환이 아니라 기입이 사회의 본질이라고 역설한다. 달리 말해 그 사회의 생산물,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평형상태로 유지시키는 순환이 아니라, 그런 순환/교환의 양상과 속도, 곧 흐름을 결정하는 코드를 부과하는 것, 규칙을 기입하는 게 사회체의 원리라는 것이다. 요컨대 욕망의 도관을 규정짓는 것이 기입이고, 그 기입하는 기계들의 집합을 사회라 부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기관은 탈코드화와 초코드화의 첨점이지만, 또한 사유화의 거점이기도

완전한 탈영토화를 달성할 수 없다.

현대 자본주의와 달리 원시사회에서 기입의 특징은 무엇인가? 원시영토기계가 흐름을 코드화하고 기관을 투여하며 신체에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그것은 일반적 사회기계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원시영토기계의 각 기관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 부분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초월적 코드를 전제하지 않는다. 부분들은 분리되어 있으나 서로 접속해 있다. 무의식이 그렇듯, 원시적 영토기계에서 초월적인 법을 찾기로 불가능한 노릇이다. 달리 말해 오이디푸스는 근원적인 구조가 아니다.

기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식별을 도입하는 것이며, 최초의 배아에 발생의 기호를 각인하는 것이다. 파종을 위한 욕망-행위의 투여이며, 따라서 기입 이전으로의 환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실은 언제나 환원되며 동시에 파생된다(기입없는 기관없는 신체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다). 아무튼 사회체는 영토기계로서, 욕망하는 기계로서 기입을 수행한다.

왜 이런 잔혹한 일들이 사회체의 작업일까? 기입은 생살에 문자를 새기는 것이다. 고통을 겪는 일이다. 그것은 기억을 심어주는 일이다. 니체에 따르면 기억이란 문화의 과정이다. 문화는 사회의 법을 습관처럼 익히고 배우고 훈련하는 고된 경험이다. 그렇게 문화는 기억되는 것이며, 순수하게 대지 위에 남겨져 있던 인간을 그 사회체에 기입시키는 잔혹성의 체제다. 문화적 기억을 새기는 것.

여기서 좀 아는 척하고 싶은 이는 벤야민의 유명한 경구, 즉 모든 문화의 역사는 잔혹을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들뢰즈와 가타리는 문화란 위선이며, 피지배자의 피와 땀으로 건설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데올로기적이다. 차라리 지금 여기서 문화는 사회기계의 체제, 그것의 운동에 관한 것이다. 몸에 각인된 문자는 문화를 구성한다. 그것은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빛을.

4. 코드와 욕망

코드란 무엇인가? 문제는 정확히, 코드(code)가 아니라 코드화(codage)에 있다. 즉, 코드를 부여하는 작용이다. 그것은 사회적 형식의 세 가지 패턴으로서, 현실을 유동하는 힘, 곧 욕망을 포획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순환·변전하도록 낙차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욕망은 그 자체로는 단지 흐름이다. 거대하고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힘이지만, 흐름은 단지 흐름이다. 홍수가 났을 때 생겨나는 물길을 상상해 보자. 단지 물이지만, 그냥 물은 아닌, 거대한 물의 흐름. 그 물길에 휩쓸리면 아무리 크거나 아무리 작거나 무엇이든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다. 욕망의 흐름은 이렇게 어디서나 넘쳐흐르는 힘으로 정의되며, 갑작스럽고도 우연하게 솟아올랐다가 잦아들고, 저수지에 고이 저장되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인간이나 자연에 유익한 자원이 되지만, 일단 제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고장!) 그 자체의 추력에 따라 제멋대로 움직이는 괴물이 되고 만다. 욕망 또한 그렇다.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한 물질적 힘이다.

욕망은 생산능력이다. 욕망은 문화를 창달하고 산업을 진작시키며 사회를 구성하는 힘이다. 동시에 욕망은 그 모든 생산의 산물들을 파괴하고 무(無)로 돌려버리는 파괴력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마치 홍수의 물길과도 같이, 욕망은 내버려두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며, 다양한 다른 욕망들과 접속하고 갈라지며 합쳐짐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힘 자체이다.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런 욕망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술발전의 역사, 사회적 기계의 축조술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솟아 오르는 욕망의 상승을 끊임없이 하강시키고 특정한 방식으로 생산에 전용시키는 안정화 기제가 사회 구성체의 목표이자 본질인

것이다. 코드화란 바로 그렇게 욕망의 흐름에 코드(법·제도·규범·습속)를 부과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5. 원시 영토 기계와 코드화: 비대칭적 증여의 일반경제

본원적인 의미에서 원시영토기계는 원시사회에서 구축된다. 그것은 대지에 인간의 욕망이 절합될 수 있는 흠을 파는 것, 거기에 코드를 부여하여 생산의 사회적 장을 설립하는 것이다. 노동이 투여되고 노동의 산물이 소진되지 않는 순환을 형성하는 게 사회의 임무다. 원시사회의 코드화 메커니즘은 ‘중심없는 부채’를 통해 만들어졌다. 즉 빛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빛을 지우는 것. 여기서 모스를 비롯한 인류학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화폐라는 초월적 남근에 길들여진 우리는 교환 없는 빛을 상상할 수 없다. 신용카드와 대출금, 부채사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부채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부채는 아무리 상환일을 연장하더라도, 결국은 되돌려주어야 할 의무이며 강박, 법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종 채권자는 바로 국가다.

하지만 원시사회에서 부채는 그 의미가 다르다. 물론 빛은 갚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갚지 못할 빛이 아니며, 갚되 쌍방평형을 노정하는 과정도 아니다. 왜냐면 교환의 일반적 매개물인 화폐가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우리가 시계와 책의 가치를 계산해서 비율로 매길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있기 때문이요, 가격은 화폐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화폐가 없다면 가격은 매겨질 수 없고, 가치는 산정되지 않는다. 공통의 척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척도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이 경우 교환은 불가능하다. 단지 선물과 도둑질만 있을 뿐! 대체 이런 순환은 왜 있는 것일까?

부채는 증여를 통해 구성된다. 각각의 부족은 이웃부족에게 증여의 공세를 펼친다. 증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물을 주는 것, 베푸는 것은 스스로 강자임을,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증여는 필연적으로 낙차를 만든다. 철수가 영수에게 선물을 준다면, 베푼 자로서 철수는 영수보다 우월한 자리에 서게 된다. 만약 선물을 거부한다면? 그런 낙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그렇다면 전쟁이다! 호의를 거부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진저! 선물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다. 바로 이러한 돌려줄 수 없는 빛의 순환이 원시사회의 원리다. 어떻게?

원시사회에서 부족들 간의 관계에서 증여는 하나의 원환을 이룬다. 두 부족 사이의 증여란 성립하지 않거나, 대단히 국부적인 관계이기에 전체 부족이 증여의 순환에 참가해야 한다. 끊임없이 서로를 부채관계에 놓는 것, 그것이 사회체의 코드다. 여자와 조개껍데기를 순환시키고(폴리네시아), 우월성의 낙차를 무화시키면서 잉여를 제거하는 것(포틀레치).

6. 전제군주 기계와 초코드화: 주인기표의 지배

초코드화는 국가의 메커니즘이다. 물론, 국가란 원시사회에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발전단계가 아니라, 원시사회에 근원적으로 잠재해 있던 하나의 경향, 곧 구심적인 힘이다. 모든 코드를 무화시키고 단일한 하나의 코드만을 실효화시키는 경향이 초코드화다. 코드화의 메커니즘은 증여자와 수여자 사이의 부단한 전복성이 작동하고 있었다. 선물을 받으면 열등한 자리에 놓이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줌으로써 우월성을 탈환한다. 부채를 서로에게 지우면서 힘의 낙차를 이리저리 이전시키는 운동이 코드화에 내재한 사회구성의 법칙이었다. 반면, 초코드화는 부채의 쌍방향성 혹은 다방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결코 벗어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부채의 무한성!

전제군주 기계의 전형적 사회 형태는 ‘동양적 전제주의’라 불리는 것으로, 고대 중국의 치수(治水) 사업이 모델이 된 체제다. 거대한 중국의 땅덩이엔 수로를 파고 강물이 흐르고 순환하도록 다스리는 것. 여기엔 유일한 실체이자 주체로 거명되는 군주의 권력만이 실효적인 코드로 등장한다. 나머지의 코드들은 이 초월적 코드의 하위요소로서 사회를 세분하고 운영한다.

특징적인 것은 그 하위코드들은 서로 교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귀족과 농노를 지배하는 주체는 군주지만, 군주가 귀족과 농노를 동일한 방식으로 지배하지는 않는다. 서로에게는 각자의 지위에 어울리는 세분화된 코드들이 준비되고 그에 따라 통치된다. 양반이 입는 옷과 쌍놈이 입는 옷이 다르고, 언어와 거동, 식사법, 사회적 관계 등이 모두 다른 식으로 설정된다. 러시아에서는 혁명 전까지 귀족을 죽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불과 1960년대까지도 미국에서는 버스에 백인과 유색인의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다. 각각의 코드는 외부로 방출되지 않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그 잉여가치의 일부는 코드의 장벽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다른 일부는 전제군주에게 수취된다. 이렇게 전제군주 기계는 흐름을 질적으로 구분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

7. 문명 자본주의 기계와 탈코드화: 화폐라는 초월자-남근기표

자본주의 기계는 코드화와 초코드화, 탈코드화를 탈코드화의 우위 속에서 중첩적으로 작동시킨다. 세 가지 코드화의 기계는 동시에 구동되지만, 언제나 앞서는 것은 탈코드화다. 자본주의는 공리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자신을 넘어선다. 코드는 질적인 위계들에 주로 관계한다면, 공리계는 양적 흐름의 제어장치로서 자본주의를 극한까지 밀고 간다. 예컨대 자유무역의 이념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경향은 고전적 자본주의의 공리계를 넘어서며 다시 한번 감싸 안는다. 감으면서 펼치고, 펼치면서 감는 주름운동의 역량이 자본주의의 추력이다. 자본주의의 유연화 운동, 달리 말해 탈코드화와 재코드화의 세계사적 경향은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을 탈영토화시키는 ‘해방자’로서 자본주의는 그러나 단 하나만은 해방시키지 못한다. 즉 분열적으로 운동시킬 수 없다. 그것이 화폐, 즉 물신이다. 순수한 초월적 기표로서 화폐는 공리계의 정박점으로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유동시키지만, 그 자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왜일까? 화폐는 추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래 실체가 없다. 남근, 곧 대상^a로서 화폐는 상징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재다. 나아가 화폐와 동일시되며 작동하는 자본이 바로 실재다. 이 점에서 기관없는 신체는 바로 자본이란 사실이 드러난다. 자본은 현실의 모든 것을 화폐로 환원해서 식별하고, 분별하며, 사회적 장에 기입한다. 그러나 자본 자체는 결코 기입되지도 식별되지도 않는다. 자본이 탈영토화의 극한이다.

물신이란 무엇인가? 대체물이다. 금지되어 있기에 차마 볼 수 없는 대상을 대신하고 대리하며 재현하는 것이 물신이다. 그것은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것, 하지만 종합을 통해 생산하는 것이다. 물신의 논리에 얽매어 있는 이상, 우리는 물신이 가리키는 것을 도저히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 (“아 눈부셔!”). 화폐는 모든 사물을 내재성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존재론적으로 평면화한다. 그 자신만 제외하고, 따라서 화폐를 신주로 삼는 자본주의는 물신의 내재적 초월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자기 비판의 불가능성이 자본주의를 극한 너머로 이끌지 못하는 것. 자본주의 기계의 운동은 탈코드화의 경향적 이행이지만 궁극적으로 재영토화에 복속되는 운동이며, 후자가 존재론적으로 선차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상대적 탈코드화, 상대적 탈영토화의 편집증적 극을 자본주의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본이라는 기관없는 신체는 내재성의 평면에 이

를 수 없는 초월적 표상임이 분명하다.

8. 원국가의 망각과 회귀

국가는 언제나 역사적이고 실증적으로 규명되어 왔다. 이는 맑스주의 이론가들도 공유하던 것인데, 가령 (1) 원시공산제사회 (2) 고대노예제국가 (3) 봉건제 (4) 자본주의 (5) 사회주의라는 도식이 그리하다. 그런데 칼 비트포겔은 고대 중국의 제국을 연구하던 중 ‘동양적 전제주의’라는 야릇한 형태를 발견하고 주목한다. 그것은 거대 치수사업을 통해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전일적으로 위계화된 사회형태인바 고대 노예제나 봉건제로 환원되지 않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사회였던 것이다. 하지만 대개의 맑스주의자들은 비트포겔의 발견을 무시했는데, 왜냐면 너무 ‘특수하기’ 때문이며 지나치게 ‘강력한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진다. 만약 동양적 전제주의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모델이었다면?

9. 오이디푸스, 再來

- 극한 속의 오이디푸스
- 세계사의 조작과 구성
- 프로이트의 위대함과 졸렬함
- 극장의 무의식, 공장의 무의식
- 분열분석을 위하여